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부터 원희룡, 유승민, 홍준표, 윤석열)들이 13일 제주에서 열린 방송토론회에 앞서 파이팅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사진기자회

“제2공항 추진”... 부지 변경도 시사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제주합동 TV토론회 개최
 유승민·홍준표·윤석열... 제2공항 부지 바꿀 수 있어
 “제주 4·3 희생자 배·보상 금액 상향해야” 한 목소리

국민의힘 대선 주자 중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제외한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도민 뜻에 따라 성안이 아닌 다른 부지에 제2공항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또 모든 후보가 현 정부에서 책정한 제주 4·3 희생자 배·보상금이 적다며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2면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KBS제주방송총국에서 제주합동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은 제주 공약과 상대방 공약 검증 등을 고리로 맞붙었다.

이날 후보들은 제주 제2공항이 반

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원 전 지사는 “도지사 취임 후 7년간 제2공항 건설을 계속 추진해왔다”며 “현재 도민사회에서 지속되는 갈등을 취합해 (제2공항을) 정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전 지사는 재임 기간 내내 성안에 제2공항을 지어야 한다고 입지 변경 논의를 일축해왔다.

유 전 의원은 “앞으로 먹고 사는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반드시 제2공항이 필요하다”며 건설 당위성에 대해선 원 지사와 의견을 같이했지만 제2공항 입지에 대해선 “도민의 뜻을 물어 인공섬까지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고 말해 의견이 엇갈렸다.

홍 의원은 마찬가지로 이날 토론회에서 “제2공항을 어떤식으로든 제대로 건설해 제주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공약한 홍 의원은 입지 변경 가능성에 대해선 이날은 따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 8월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선 정석비 행정 활용과 현 공항 확장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역시 “제2공항을 무조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토론회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거론되는 부지로) 성산, 정석공항, 제3의 장소 등 도민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며 원 전 지사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처럼 입지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주4·3 현안에 대해선 모든 후보들이 배·보상금액을 1억30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4·3과 관련해 원 전 지사는 당내

4·3 이념 논쟁을 끝내자고 했으며, 유 전 의원은 4·3 정명 찾기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제주4·3국가추념일을 두고선 홍 의원은 중산간 학살이 일어난 7월로 옮기자고 했지만, 윤 전 총장은 4·3은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까지 전체 과정이라며 홍 의원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의견이 갈린 것도 있었다. 홍 전 의원이 공약한 제주 카지노 내국인 이용 허용 방안에 대해선 나머지 후보 모두 제주도민 정서와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 다만 홍 의원은 제주도민이 반대하면 ‘오픈 카지노’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제주환경기여금 도입에 대해 홍 의원은 허용되면 다른 지역도 도입하려 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유 전 의원과 윤 전 총장은 환경기여금을 도입해 기본 소득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비상품감귤 불법유통 손본다

도, 이달말까지 전국 도매시장 현장 특별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0일까지 전국 소비자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출하 등에 대한 유통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9월 23일부터 올해산 노지감귤이 본격 출하되면서 비상품 감귤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 등 소비지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양 행정시, 농협, 감귤출하연합회 등 42명으로 감귤유통지도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본격 가동하고 있다.

특별점검반은 9대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2L과 포장 내 대과 포함 여부 ▷2S 미만 소과 출하내역(당도 10브릭스 이상 여부) ▷중점점과 및 부패과 포함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선과장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적발된 위반자(농가·유통인 등)는 명단 관리를 통해 행·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특히 2회 이상 적발되는 선과장은 품질감사원을 해촉하고, 재위촉을 금지해 사실상 선과장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강력 조치한다. 아울러 전국 소비자 감귤출하 상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감귤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고대로그자

투자진흥지구 일부 사업 수정

삼매봉벨리·한라힐링파크도, 심의 거쳐 변경 고시
 휴업 일부호텔 지정 해제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사업을 지속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삼매봉벨리 유원지와 한라힐링파크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을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달 29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삼매봉벨리유원지는 서귀포시 호근동 399번지 일대에 콘도 78실, 호텔 160실, 온천장(스파)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제주지역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삼매봉개발(주)는 올해 700여억원을 들여 호텔 건축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테리어 및 조경공사도 앞두고 있다. 내년 6월 말까지 690여억원을 추가 투자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에 따라 삼매봉벨리유원지 사업기간이 2022년 6월 30일까지 변경되며, 총 사업비도 2514억원에서 3293억원으로 779억원 증액됐다. 건축면적은 405.67㎡ 감소했다.

한라힐링파크는 사업시행자인(주)휘찬이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일원에 휴양콘도·미술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이미 사업 완료된 박물관을 미술관으로 변경하기 위해 16억원을 투자한 데 이어 2022년 6월까지 200여억원을 투자해 휴양콘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라힐링파크는 관련 대표자, 지정 업종, 사업기간 등이 변경 됐다.

제주도는 운영이 미흡한 루스톤빌 라엔호텔은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루스톤빌라엔호텔의 경우 제주시 에일을 고대리 일원에 관광호텔 조성을 목적으로 2014년 12월 24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건축공사를 마무리한 후 장기간 휴업상태가 이어져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회복명령과 청문 절차를 거쳐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고대로그자 bigroad@ihalla.com

제주 코로나19 신규 9
 13일 <17시 기준> 누적 2999

ART FESTA

제6회 아트페스타인제주 2021

산지 || 여객지

山 地 列 展

The Biographies of San-zi

2021. 10.15. ^金 ~ 10.31. ^日

본전시_물 내려온다 | 탐라문화광장 야외전시
 본전시_사색과 교감 | 북수구광장 야외부스
 본전시_제주풍담(風談) | 산지천갤러리 실내전시
 특별전시_중국교류작가특별전 | 산지천갤러리 실내전시
 특별전시_시인행린지 프로그램 산지심다 | 북수구광장 야외부스

참여작가
 강동철 | 강문석 | 강수정 | 강승철 | 강재욱 | 강주리 | 강주현 | 고 은 | 고경태 | 고순철
 고승철 | 고희호 | 고희호 | 고희우 | 김강준 | 김남숙 | 김남표 | 김명관 | 김미지 | 김상현
 김성오 | 김성진 | 김소은x김선영 | 김수현 | 김순임 | 김연정 | 김영호 | 김유정 | 김윤아
 김인태 | 김진우x소영 | 다 나 | 문순희 | 박건재 | 박종호 | 박지원 | 박지은 | 박창범
 백주순 | 부지현 | 송창훈 | 신승훈 | 신형섭 | 안상진 | 안경렬 | 양동규 | 양민희 | 양영섭
 양정임 | 오미경 | 오은희 | 오창윤 | 원병민 | 유종욱 | 유창준 | 유종욱 | 이경재 | 이동현
 이미선 | 이승수 | 이욱문 | 이은경 | 이지현 | 이창희 | 이 달 | 장승원 | 정은우 | 정기엽
 정승용 | 정재훈 | 차정아 | 최나리 | 최라윤 | 최윤정 | 최정수 | 최정우 | 최창훈x고윤식
 하용주 | 한 진 | 허문희 | 허민경 | 현덕식 | 홍기자 | 홍덕표 | 황지현 | CBDU

중국교류작가
 Yan Ge 葛彦 | Han Chun Yang 韩春阳 | Jiyong Lee 李吉英 | Ma Libiao 马立华 | Qi Wenzhang 齐文章
 Song Xi 宋兮 | Xiao Jiang 肖江 | Xu Dawei 徐大卫 | Yao Chunhui 姚纯纯 | Zheng Leang 钟乐星

주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주관 아트페스타인제주추진위원회